



## 동양생명 매각 성공 가능성은?

채원영 연구원

■ 대한생명은 4월 10일 보고펀드에 동양생명 인수가격과 조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4월 12일 보고펀드와 인수가격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 마감시한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졌음.

- 보고펀드는 매각 희망가를 주당 25,000원에서 22,000~23,000원대로 낮추었으나 대한생명은 21,000원대를 제시하였음.
- 보고펀드가 대한생명에 제시한 가격은 최종 매각 희망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 동양생명 매각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함.

- 동양생명 매각이 유찰된다면 동양생명 기업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수반될 것으로 보여, 보고펀드는 신속히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는 평가됨.
  -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의 매각이 완료된 후에 매각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첫째, 매각 작업 장기화에 따른 영업조직의 이탈로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둘째, 협상 결렬이 반복될 경우 동양생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임.
- 대한생명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매각이 완료될 경우, 보고펀드의 투자수익률은 13~30%로 예상되고 있음.
  - 또한, 대한생명은 2011년 12월 말 기준 81조 4,739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어 확실한 업계 2위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대면 채널에 동양생명의 강점인 방키슈랑스가 더해져 판매채널의 다변화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1〉 동양생명 매각 진행 현황

일 자	내 용
2011년 1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인수 의사 공식화</li> <li>푸르덴셜생명, 동양생명 실사 착수</li> </ul>
2012년 1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생명, 푸르덴셜생명, 예비 입찰제안서 제출 (보고펀드 제시가: 주당 26,000원 선)</li> <li>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 인수 추진 검토 중단 발표</li> </ul>
2012년 3월 2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양생명 매각 본입찰 마감일</li> <li>대한생명, 푸르덴셜생명, 입찰제안서 제출</li> </ul>
2012년 4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고펀드, 대한생명과 푸르덴셜생명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가격협상 지연으로 최종매각대상자 선정 기간 연장</li> </ul>
2012년 4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한생명, 인수가격과 조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li> </ul>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집행사원(GP): 보고펀드</li> <li>매각주관사: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우리투자증권, 다이와증권</li> <li>동양생명 지분 중 보고펀드 보유 지분 60.7%, 매각 대상 지분 68.65%</li> </ul>

자료: 보험연구원.

■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sup>1)</sup>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은 국내외 인수후보군에 투자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구체적인 인수형태에 대한 언급 없이 매각 시 중국과 인도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합작 보험회사에 우선권이 있다는 주석이 포함되어 있음.<sup>2)</sup>

- 인수 후보군 중 국내업체로는 KB금융지주와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이 있음.
  - KB금융지주는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의 한국법인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보험회사와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인수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짐.
  - 대한생명은 현재 진행 중인 동양생명 인수에 성공할 경우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의 해외법인 인수에, 실패할 경우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의 한국 법인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짐.
- 해외업체로는 AIA그룹, 푸르덴셜 생명, 메트라이프, 매뉴라이프 등이 있으며 일부 사모투자펀드도 인수 후보군에 포함되었음.

■ 매각 주관사는 비밀유지서약(CA)을 제출한 인수후보 업체에 4월 중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5월 중 1차 입찰을 받을 예정임.

(한국경제, 매일경제 등)

1) 현재 ING생명 아시아·태평양 법인은 한국, 일본, 중국,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7개 국가에서 영업 중임.  
 2) ING생명 아시아·태평양법인의 중국과 인도법인은 현지 보험회사와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